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 입 당 | 예물 준비 | 영성체 | 파 견 |
|---------------------|---------------------|-----------------|----------------------|
| 439 (부드러운 주의 손이)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188 (천사의 양식) | 478 (주님께 영광을 드리자) |

제 1독서 | 지혜 18,6-9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좌)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좌)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독서 | 히브리서 11,1-2.8-19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2,35-40

오늘의 전례 묵상 |

믿음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극적인 결과를 보여 주지도 않지요. 그렇기에 믿음의 여정은 희망과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지혜서입니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인들의 여정, 다시 말하여 구약의 하느님 백성이 믿음으로 걸어온 해방과 구원의 여정을 간략히 그립니다. 제2독서는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11,1)라는 명제로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사라, 이사악과 야곱이 걸어온 길을 재조명합니다. 이를 통하여 구약의 성조들에게 믿음의 여정은 희망과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복음은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루카 12,40)라는 결론으로, 루카 복음사가는 믿음의 여정을 희망과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으로 설명합니다.

Today's Gospel (Luke 12,35-4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모든 새벽에 모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Gird your loins and light your lamps and be like servants who await their master's return from a wedding, ready to open immediately when he comes and knocks. Blessed are those servants whom the master finds vigilant on his arrival. Amen, I say to you, he will gird himself, have the servants recline at table, and proceed to wait on them. And should he come in the second or third watch and find them prepared in this way, blessed are those servants. Be sure of this: if the master of the house had known the hour when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You also must be prepared, for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the Son of Man will come."

교부(Church Fathers)들의 오늘의 복음 주제

1. 절제와 선행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사나운 욕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절제와 관련된 것이지요. 등불을 밝힘은 선한 행실로 빛을 내는 것이니, 정의와 연관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러 주십니다.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주님께서 오시면,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사랑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어, 온갖 악의 시련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 속에서 지고한 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 성아우구스티누스, <절제론>, 7

2.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갚아 주시다

그분께서 오셔서, 허리에 띠를 매고 깨어 있는 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 곧바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풍성한 선물과 영적 잔칫상을 차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수고한 만큼 위로해주실 것입니다.

- 성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 <루카 복음 주제>, 92

<성경 속 희망의 순례자들> - 불행이 희망을 멈추게 하는가?



<Jacob Wrestling with the Angel, by Eugène Delacroix>

구약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겪은 인물을 하나 꼽는다면, 그것은 야곱일 것입니다. 장자가 아닌 데다 고대 사회가 요구하는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야곱은, 짙은 죽 한 그릇 값으로 형 예사우의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마저 가로챩니다. 이 때문에 그는 형을 피하여 달아나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차서 홀로 낯선 길을 가던 야곱은 베텔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야곱에게 땅과 후손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늘 야곱과 함께하면서 그를 지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댁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삼촌은 열 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라헬은 오랜 기다림 끝에 귀한 아들 요셉을 낳았지만, 훗날 벤야민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결국 야곱은 모든 식솔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달아났습니다. 야鬟강에서는 엉덩이뼈를 다쳐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만 했던 형 예사우와의 만남은 다행히 잘 지나갔지만, 야곱의 삶은 이후에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스케임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였고, 시메온과 레위가 이를 잔인하게 복수하는 바람에 그곳을 떠나 베텔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하느님은 베텔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텔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라헬이 죽어 그를 길가에 묻고 떠나야 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소실인 빌하와 동침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야곱이 편애하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 갔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는 오랫동안 상실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쳐오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보낸 자식 중에서 시메온은 옥에 갇히고,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이번에는 벤야민마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그들을 보살펴 줄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야곱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가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로 가던 중 브애르 세바에서 하느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실 것이며, 그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130세에 이집트로 내려간 그는 147세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나그네로 살았고, 고통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느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불행을 겪어냈습니다. 그의 불행은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희망을 멈추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애가의 시인처럼 야곱도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뜻, 그래서 나 그분께 희망을 두네.”
(애가 3, 24)

- Sr.김영선 루시아

공지 사항

1. 손님 신부님들 환영합니다!

캔버라 한인성당에 방문해주신 세 분의 신부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Fr.박상호 라파엘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 Fr.최승범 베드로 (군종교구 파견 - 백령도)
- Fr.김솔 노엘 (사회복지국 차장)

2. 8월 식사 및 간식 나눔

오늘 주일 미사후에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간식 나눔은 8월 24일(주일)에 있습니다. 나눔을 준비해주시고, 뒷정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성모 승천 대축일 한인 미사 안내

일시: 8월 15일(금), 저녁 7시. 아란다 성당

4. 여정 ‘시즌 5’ 모임 안내

지난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여정 ‘시즌 4’ 영적 독서 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즌 5’는 ‘영화 및 다큐멘터리’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한 영상을 각자 시청 후, 기존과 같이 줌 온라인 나눔 모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4편의 영상을 선정하여, 약 1달 반 정도의 기간을 갖고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신자 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캔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8월 27일(수)까지
- 시작 일시: 9월 3일(수), 저녁 7시 (줌 온라인)

5. 어린이 복사단 모집

거룩한 제단에서 봉사하며, 기도할 천사들을 찾습니다. 첫영성체를 마친 친구들은 누구나 복사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사단 입단을 희망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주임신부 혹은 전례분과장 김수현 수산나 자매님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 | | |
|--------|-------------|---------|
| 7월 27일 | 유아·청소년: 17명 | 성인: 41명 |
| 8월 3일 | 유아·청소년: 30명 | 성인: 60명 |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 | |
|--|-------|
| 화 | 저녁 7시 |
|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 | |
|----|-----------------------------|
|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
|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 | |
|-----------------|------|
| 이번주 (8월 10일) | 루카반 |
| 다음주 (8월 17일) | 마르코반 |

| 봉헌금 & 교무금 | (8월 2일 ~ 8월 8일)

| | | | | |
|-----|-----------|-----|------|-----|
| 봉헌금 | \$ 359.10 | | | |
| 교무금 | \$ 845 | | | |
| 구민식 | 권묘순 | 김천주 | 남궁영근 | 손재호 |
| 안영규 | 양홍석 | 윤현태 | 이국원 | 이지영 |
| 장호훈 | 정은영 | 주정자 | 최현주 | 한상지 |
| 황병우 | | | | |

| 기도 지향 |

- * 한영길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강백일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